

“부활이 없었다면”

고전15:12-20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람이 한 평생 살아오면서 반드시 한번 이상은 자기에게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활 사상이 만일 인간에게서 나왔다면 벌써 역사 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상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 천년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 한 것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1. 신앙의 지성화를 피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성화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 오늘 날도 기독교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의 사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귀를 틀어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치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치유 전에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시와 학문적인 지식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지식은 인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축적하고 분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지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경험되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 수 많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학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기독교는 학문적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믿게 하심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지성적이 똑똑한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뛰어났지만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화 된 고린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무엇보다 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오백명이 넘으며 그 태반이 지금 살아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고전 15:3-8 참고)** 부활의 소식은 지금도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2.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거짓이요 복음 증거자들은 거짓의 무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지 못했다면 죄인 된 빛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과 피나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쾌락을 끝까지 절제하고 살아본들 그 후에 아무런 보장과 대가가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 하신 것 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 하셨습니다. 이렇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악의 사슬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3. 부활을 통해서

1) 생사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사의 해석이 분명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람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이 있음을 실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부활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흠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 부활되어 변화된 몸을 입게 됩니다. 변화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 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이 같은 변화를 다 입게 될 것입니다.

2) 삶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현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약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가 주막집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주막집이 좋던 좋지 않던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닌 주막집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우리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학식도 건강도 이런 것들에 투자하여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실패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신다.”

사도 베드로도 한갓 어부에서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3 년이나 수제자로 섬기고 따라다니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가 주님을 3 번이나 부인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목숨도 불사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여라’ 고 명령하자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한때 미국 주요 신문에 칼럼 리스트로서, 상담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만 통 이상의 편지를 독자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은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 만 통 넘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특히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장례식에 비유했습니다. 죽을 준비 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죽을 준비 잘 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는 성도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운명 하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최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믿은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은 맡기지 못하면서 나중에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은 것도 맡기지 못하면서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을 신앙을 가질 때 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는 야성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때도 모두가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합니다. 마음이 후해집니다. 나누기에 가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2000 년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근거합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변화 받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또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정이 고침을 받고 타락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십시오.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신앙의 지성화’가 최근의 사회적인 현상 속에, 문화적인 모습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도로서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4.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5.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 동안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기쁨으로 감당하며 희생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6. 4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목장별 100일 성경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하면서 느끼신 점(어려웠지만 고비를 이겨낸 경험들과 말씀을 통한 은혜 등)들을 나누어 주시고, 완독을 위해서 합심기도해 주십시오.